

2018.08.31

1학기 소식



김다운 기자

[2.21(수) 법과대학 신입생 입학식]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법과대학의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30대 오감학생회의 주최로 이뤄진 입학식은, 차례대로 법과대학 전임교수들의 소개 그리고 오감학생회와 대의원회 소개, 법과대학 내 4개 학회의 소개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내 유일 언론 기구 법률림 기자단의 홍보로 입학식을 마무리하였다.



김다운 기자

[3.13(화)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소개]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늦은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단국대학교 국제처 담당관의 교환학생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소개가 있었다. 담당관은 교환학생 프로그램, 방문학생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국제계절학기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등에 대해 소개하며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다양함을 강조하고, 법과대학 재학생에게 끝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김병도 기자

[3.14(수) 명사초청 특강]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특강이 있었다. 그는 '젊은 법학도의 비전'을 주제로 수치들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였다. 또한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을 예로 들며 청년들이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김병도 기자

[3.12~15(월~목) 학회알림제]

2018년 3월 12일에서 15일 각 학회별 알림제가 진행되었다. 학회 알림제의 시작을 알린 통일의 함성은 12일 다양한 민중가요를 선보이며 알림제를 진행하였다. 그에 이어 13일 민사법학회는 민스터디, 소화제와 같은 민사법학회만의 활동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소개하였으며, 14일 형사법학회는 모의재판 형식으로 현장견학, '짜조' 프로그램 등 형사법학회의 활동들을 새내기들에게 알렸다. 마지막으로 15일 법사회학회에서 비판지성과 권리주장이라는 정체성과 댓거리 등의 특색 있는 활동을 소개하며 알림제의 끝을 장식하였다.



김승연 기자



김승연 기자

[3.20(화) 대학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기법]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김혜원 교수의 'PPT' 관련 특강이 있었다. 김혜원 교수는 PT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과 스틱 메시지, 스토리텔링 기법을 설명하면서 여러 예시들과 책 속 한 구절을 통해 학우들의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으로 '친절한 혜강씨'라는 템플릿 블로그를 소개하며 PPT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당당함을 이야기하며 강의를 마쳤다.

[3.21(수) 법과대학 로스쿨 진학반 소개]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 반, 법학관 319호에서 법과대학 로스쿨 진학반 소개를 주제로 한 장철준 교수의 특강이 열렸다. 장철준 교수는 학생들에게서 미리 받은 질문들을 바탕으로 로스쿨 진학에 필요한 최종 학점 평균(GPA), 공인영어성적, 리트 시험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끝으로 법과대학 이동희 교수의 교양 수업을 추천하고 진로를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특강을 마무리했다.



김현진 기자



김현진 기자

[3.27(화) 법학전문도서관 소개]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오후 4시 반, 법학관 319호에서 법학전문도서관 소개에 대한 신귀순 사서의 특강이 있었다. 신귀순 사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의 위치부터 책 대여방법, 도서관내 스터디룸 이용방법까지 신입생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두 알려주었다. 더불어 퇴계중앙도서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다. 캠퍼스 간의 대차서비스도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3.28(수) 선배와의 대화 :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 반, 법학관 319호에서 '선배와의 대화 : 공무원 되기'를 주제로 박정숙 주무관의 특강이 열렸다. 그는 공무원의 종류와 시험과목에 대해 학우들에게 알려주었고, 자신이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전달하며 공무원을 준비한다면 목표의식, 간절함, 자신감은 명심할 것을 강조하며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박세윤 기자

[4.3(화) 대학생활상담센터/인권센터 소개]

2018년 4월 3일 화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대학생활상담센터와 인권센터 전임상담원의 특강이 열렸다. 대학상담센터의 전임상담원은 대학상담센터의 이용방법, 진행 프로그램을 주제로 하였고, 인권센터의 전임상담원은 인권센터의 구성과 주요 업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대학생활상담센터는 예약을 통해 집단상담, 감정관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는 양성평등 상담소와 인권상담소로 구성되어 성평등과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임상담원들은 편안하게 센터를 방문할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박세윤 기자

[4.4(수) 자기소개서 작성법]

2018년 4월 4일 법학관 319호에서 허희원 취업 지원관의 특강이 있었다. 그는 자기소개서의 목적과 작성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는 자기소개서의 핵심요소로 자기이해, 기업분석, 직무이해를 제시하였고, 지원동기와 입사 포부에 문항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기업분석을 제시했다. 또한, 인사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피해야 하는 자기소개서 유형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을 추천하였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취할 것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백민주 기자

[4.10(화) 법률리 기자단 임명장수여식]

2018년 4월 10일 오후 13시 30분 법학관 329호(3층 세미나실)에서 2018학년도 법률리 기자단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학장 정진명 교수와 지도교수인 김범준 교수는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하며, 당일 임명장 수여를 받은 14명의 왕성한 활동을 격려했다. 신입부원 14명은 해당 시간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법률리 기자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백민주 기자

[4.10(화) 대학 속 인권이야기]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16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박상욱 인권상담사의 특강이 있었다. 박상욱 인권상담사는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설명과 인권에 대해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인권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타인의 상황에 공감하는 풍부한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세세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강연을 마쳤다.



손유진 기자

[4.11(수) 선배와의 대화 : 국가직 지역인재]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전준수 주무관의 특강이 있었다. 전 주무관은 공무원 제도의 전반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국가직 지역인재에 대한 상세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공무원 직렬부터 채용 방법을 설명하면서 지역인재공무원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였는데, 그 임용과정에서 치르게 되는 PSAT 시험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끝으로는 성실한 학점관리와 목표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우종혁 기자

[5.2(수) 선배와의 대화 : 로스쿨 합격]

5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반, 법학관 319호에서 로스쿨 합격생인 13학번 이지은 선배와 14학번 이예슬 선배의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다. 학교생활, 성적유지와 같은 대학 생활 전반에 관련된 얘기를 시작으로 로스쿨 준비요령, 법학부와 로스쿨의 차이 등을 설명하였으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중인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조언을 하셨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응원한다고 말씀하시며 강연을 마쳤다.



손유진 기자

[5.1(화) 로스쿨 진학 설명회]

2018년 5월 1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장철준 교수의 로스쿨 진학설명회가 열렸다. 장철준 교수는 로스쿨 진학에 있어서 현재 부정적으로 논해지고 있는 로스쿨 등록금 문제가 로스쿨 장학금 제도의 운영으로 해소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로스쿨 진학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고려해 볼 것을 학생들에게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독서의 습관화를 강조하면서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우종혁 기자

[5.4(금) 법대체전]

법과대학 체전은 민사법학회와 형사법학회의 예선농구경기로 막을 올렸다. 이후 결승전에서는 형사법학회가 우승을 가져갔다. 족구경기도 형사법학회가 최종승리를 거머쥐었으며, 풋살은 우천으로 인한 경기 중단으로 인해 무학회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발야구경기에서는 무패행진의 통일의 합성이 우승을 차지했고 피구는 날씨의 영향으로 우천 취소되었다.



육지현 기자

[5.8(화) 경찰공무원이 되는 길]

5월 8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법학관 319호에서 '경찰을 꿈꾸는 청춘에게'라는 주제로 용인동부경찰서 이선영 경장의 특강이 있었다. 그는 경찰의 임무와 분야별 경찰, 경찰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요건, 그리고 채용방법을 순서대로 소개했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고堂堂하게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밝히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육지현 기자

[5.9(수) BEST 로스쿨 교수 민법특강]

2018년 5월 9일 수요일 법학과 319호에서 '민법공부를 잘 하는 방법?'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김형석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그는 법을 공부하는데 난항을 겪고 고민하는 학우들의 고민을 공유하며 그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6가지 공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우들에게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를 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최건중 기자

[5.15~17(화~목) 단국대학교 축제]

2018년 5월 15일에서 17일까지 단국축제가 있었다. 이에 15일부터 법학과와 각 학회들도 여러 부스를 진행했다. 통일의 함성은 음료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부스인 '통다방'을 해당관 앞에서 운영했다. 민사법학회는 해당관과 노천마당 사이 계단에서 여러 게임을 진행하는 '민사랜드'를 운영했고, 참여한 사람에게 레몬에이드를, 뽑기에 당첨된 1등에게는 영화티켓을 주었다. 형사법학회는 물풍선 티켓을 제시한 후 물풍선 게임에 참여하는 형식의 부스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16일과 17일에는 폭우로 인해 각 부스 운영에 차질이 생겨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표했다.



최건중 기자

[5.23(수) BEST 로스쿨 교수 형법특강]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법학관 319호에서 '형법과 국가와 시민'을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김성돈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그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형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형법 공부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국민의 자유의 제한 측면에서 헌법과 형법을 비교하고, 형법의 오남용과 오작동,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치와 민주의 조화를 강조하며 특강을 마쳤다.



최지원 기자



최지원 기자

[5.29(화) 선배와의 대화 : 법조인의 길]

2017년 5월 29일 화요일 법학관 319호에서는 김수현 변호사의 특강이 있었다. 김수현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로펌 소속 변호사의 업무 소개와 소송단계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김 변호사는 로펌 소속 변호사의 장단점도 소개하였다. 다음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법조계 학연 문제에 관한 질문에는 실질적으로 체감한 적이 없고 외부의 인식과는 달리 법조계 내에서는 학벌에 관한 바는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5.30(수) 선배와의 대화 : 공기업으로 가는 길]

2017년 5월 30일 법학관 319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11학번 정호진 동문의 특강이 있었다. 채용공고에 앞서 공기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준비과정에서 사기업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업무와 공기업의 장단점을 소개하였는데 장점으로는 정시 출퇴근 등 자유로운 업무환경을 꼽았으며, 단점으로는 대민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와 특성이 맞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채용 준비 시 스펀디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리기자단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